

# 북방어장 침체어망 인양사업 '난항'

## 두달 작업기간 중 한달 지났으나 2% 처리 그쳐 ... 어민 참여 배제가 원인

고성군이 해양생태계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사업 실적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60일간 국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방어장에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에 들어간지 약 한달이 경과한 지난달 27일 현재 전체 계획 물량인 132톤의 2%에 불과한 3톤을 수거하는데 그쳤다.

### 어장황폐화 가속 우려

이대로 간다면 작업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어렵게 세워진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침체어망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회유하는 물고기나 어린 물고기들이 걸려 죽으면서 어족자원 고갈 및 어장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회수한 어망의 분량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작

## 어족자원 고갈·어장황폐화 가속 우려 ...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어 참여 업체 "이대로 가면 적자" ... 고성군 관계자 "아직 시간 많다"

업에 참여한 해양폐기물 수거업체의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해, 자칫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업량을 채울 우려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침체어망 인양사업 때 작업물량이 나오지 않자 폐어망 대신 시멘트 구조물과 돌덩이를 폐기물로 둔갑 처리한 부산지역 업체 대표와 이 업체로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고성군청 공무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작업기간의 절반이 경과했음에도 이처럼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어민들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해 침체어망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성군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그동안 수협 회의실에서 고성군 관계자와 어민들이 간담회를 열어 침체어망이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찍는 설계작업을 하고, 이어서 해양폐

기물 수거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설계작업에 참여했던 어민들과 업체가 함께 현장으로 나가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올해는 어민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수협 회의실에서 고성군 관계자와 어민들이 간담회를 갖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작업에 들어갔다"며 "올해는 이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성군에서 그동안 전례가 없이 올해만 유독 수협을 배제시킨 것은, 러시아 명태사업으로 발생한 마찰 때문에 '괘심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고성 어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09년 침체어망 인양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거진지망협회 조진석 회장은 "본래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어민들을 참여시켰는데, 올해는 왜 그런지 어민들을 배제시켰다"며 "어선 1척은 두 달 동안 계약을 해서 작업에 참가하고, 한달에 4~5회 정도는 다른 어선 3척을 동원해 인양작업을 함께 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해양오염을 막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면세유와 함께 어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 참여업체 발 '동동'

어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자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작업실적이 오르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번 침체어망 인양작업에 참가한 대기해양주식회사 조휘영 과장은 지난달 27일 "경비만 하

루 300만원씩 들어가는 데 실적이 없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고성군수협과 대진, 거진 지역 어민들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도와달라고 했지만, 고성군에서 정식 협조요청이 들어와야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호소했다.

조 과장은 "작업기간의 절반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3톤을 수거하는데 그쳤으며, 이런 상태라면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결국 우리가 고성군 관계자에게 '수협에 협조공문을 보내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연안 어장은 어민들이 침체어망의 위치를 잘 알지만, 북방어장은 그렇지 않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또 해군에서 일반어선의 출입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어서 협조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작업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을 수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누구나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어요"

## 보육시설연합회 주관 '행복한 가정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되기' 부모교육

"이해와 사랑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보육정보센터가 주최하고 고성군 보육시설 연합회가 주관한 '행복한 가정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되기' 부모교육이 지난달 26일 오후 7시 고성군문화의 집 3층 대강당에서 아동 부모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부모교육은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소속의 김학룡 강사가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되기'란 주제로 남성육아 및 가사 참여 내용 등으로 알차게 진행했다.

이날 부모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는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의식하게 되고, 참된 부모상이 무엇인지



지난달 26일 오후 7시 고성군문화의집에서 열린 행복한 가정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되기 부모교육 장면.

보여준 교육이었다"며 "이런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 이상의 교육"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한 관계자는 "너무 기분 좋

은 교육이었다"며 "가족이 함께 교육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교감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흐뭇해 했다.

박승근 기자

## 민병희 교육감 고성방문 평화통일 교육·친환경 무상급식 강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달 25일 고성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을 방문해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민 교육감은 이날 방문에서 강원교육의 슬로건인 '모두를 위한 교육'의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현안과제 파악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방문에서 분단 자치단체인 고성에서의 평화통일 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놀이의 특징 5가지'를 교육에도 접목시켜 내적 동기를 유발해야 학생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